

창세기(15)

창세기 2 장 18 절부터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에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보시려고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랴 부르든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되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에 새와 들에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었으나 아담이 자기를 위해 돕는 자는 찾지 못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라.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태초에 창조하신 그 질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 안에서 축복받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현 세상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깨닫고 행하므로 주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축복 안에서 살다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 드렸나이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참고하면서 유익을 취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군상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 안에서 궤도 안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딪치는 것도 없고 파괴되는 것도 없이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상에 창조된 많은 만물들이 있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새도 물고기들, 그들도 사실 인간의 죄 때문에 좀 파괴되고 저들이 인간을 대항해서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특별히 마음대로 하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대로라는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질서 안에 거할 수도 있고 질서를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에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결국 인간들이 이렇게 부패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 중에서 그룹 중에서 덮는 그룹이었던 루시퍼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 루시퍼를 따라서 자기 위치를 지위를 떠난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유다서에 보면 그들을 흑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했습니다. 지옥에 가뒀다 이겁니다. 천사와 사람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홍수 때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결국 거인들을 낳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멸한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9 절을 봅시다.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에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보시려고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되더라.” 여기 보면 갑자기 앞에는 사람이라 하다가 또 남자라고 하다가 갑자기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담이라는 말 그리고 그 남자가 모든 짐승이나 공중의 새 이러한 생물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 주었고 그대로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변해서 아담으로 되었습니다. 유대인 성경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럼 네 이름은 뭐냐? 네 이름도 대봐라.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해요. 그러자 ‘나는 아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이고 남자인데 갑자기 아담이 나오니까.

모든 생물들의 이름은 다 지어 주었는데, 네 이름은 무엇이나? 나는 아담입니다. 아다마라는 흙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와 에돔 즉 붉은 갈색 먼지 티끌이라는 두 말이 합성어가 되어서 아담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아담! 흙으로 되었는데 붉은색으로 되었다. 옛날 에서가 붉은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서의 자손을 ‘에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이름들을 지은 최초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담, 사람, 남자 역시 당시에는 동물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받은 것 외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20 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이 자기를 위해 돕는 자는 찾지 못하더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날짐승 들짐승 가축 다 나오는데 기어 다니는 뱀 같은 파충류나 양서류 같은 동물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 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우리가 보통 그 아담의 부인을 이브라고 부릅니다. 개역에는 하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자라고 되어 있지 이름이 없었다가 범죄한 후에 여자가 변화되어 이브가 되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완전히 하나였다 이겁니다. 아담! 남자는 아담이었고 그 아내는 여자였습니다. 여자. 그런데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니 갑자기 이브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범죄하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지만 범죄해서 이브들이 되다 보니까 둘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리들을 치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보고가 들어있지요. 영국에 내과 의사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은 깊은 잠을 자게 하여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취해 꺼내어 그것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보다가 결국 이 분이 수술할 때 마취하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뒤에 가보면 출애굽기 2 장에 ‘역청’이라는 것이 애굽에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깨달아서 ‘야! 그 밑에 기름이 많겠구나.’ 해서 스펀다드라는 석유회사가 생겼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보화가 쌓여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1967년 6월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 사령관도 사사기 여호수아를 읽다가 필리스타인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하는 장면을 연구하다가 거기서 그가 전투 계획을 세워 이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세기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행한다면 축복이 될 텐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상태에서 떠나 살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됩니다. 결혼할 때는 나란히 서서 주례 앞에서 맹세까지 했지만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상고해야 할 것은 자세하게 상고해 보겠습니다. 21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이것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갈비뼈 중에서 한 개를 취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를 찾아보겠습니다. 킹제임스성경 단어 하나하나에는 영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학자들을 통해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23 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일점 일획도 없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점 일획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질 않죠.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2장 23 절, 22 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다시 말하기를 ‘나를 쫓지 말고 옆으로 돌이키라. 어찌하여 내가 너를 땅에다 치랴? 그리하면 어찌 네 형 요압에게 내 얼굴을 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가 옆으로 돌이키기를 싫어하니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다섯 번째 갈비뼈 아래를 찌르니 창이 그 뒤로 나온지라. 그가 거기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 아사헬이 쓰러져 죽은 곳까지 온 모든 자들이 가만히 섰더라.” 여러분 다섯 번째 갈비뼈를 집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서 혼자 있을 때 다섯 번째 갈비뼈를 손으로 집어보세요. 그 밑이 어디가 되는가? 특별히 왼쪽을 한번 집어보세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4장 6 절을 한번 보세요. 5 절부터 보겠습니다. “브렛롯인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바아나가 가서 그날의 햇별이 따가울 무렵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정오인데 그가 침상에 누워 있더라. 그들이 밭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안으로 들어와서 그의 다섯 번째 갈비뼈 아래를 찌르고 레갑과 그의 아우 바아나는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그가 그의 침실 침상에 누워있는지라. 그들이 그를 쳐서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평원을 가로질러 갔더라.” 그들이 다섯 번째 갈비뼈 아래를 찔렀다. 사람을 죽일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20 장 10 절을 보겠습니다.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에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다섯 번째 갈비뼈를 찌르니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져 나와 다시 찌르지 아니하여도 그가 죽으니라. 그리하여 요압과 그의 아우 아비새가 비크리의 아들 시바를 추격하더라.” 다섯 번째, 왜 성경에 하필이면 다섯 번째라고 했을까요? 다른 성경에는 다섯 번째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상고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누구에 관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애깁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고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얘기합니다. 대충 적당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적당히 대해 주시는 것이지요. 먹고 사는 문제는 죽어라 머리를 싸매고 하고 썩을 것을 위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죠. 너희가 썩을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 일하라. 양식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알고 이 말씀을 위해 일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도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자주 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숫자를 연구해서 다섯이란 숫자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창세기 5 장 5 절을 보면 성경 최초로 어떤 한 사람이 죽습니다. “930 년을 살다가 아담이 죽으니라.” 생명의 책에 죽음이란 말이 창세기 5 장 5 절에 기록되어 있고, 사탄을 표시하는 영어 단어도 다섯 글자, snake 도 다섯 글자, devil 도 다섯 글자이고 그 다음 은혜(grace)도 다섯 글자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다.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견해 놓은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자가 태어난 것은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태어났던 겁니다. 나중에 보면 여자가 죄를 지었을 때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그 남자도 받아먹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남자는 그리스도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으면 죄 값이 사망이니깐 다 멸망시켜버리고 깨끗이 청소해서 태워버리고 다시 만드시면 되는데 왜 다시 만드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람까지 되셔서 죽으러 오셨는가? 실제로 왜 죽으셨는가? 하지만 그 분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나올 수가 없지요. 우리는 다 예전에 죽었었어요. 우리는 호홉만

하면 살아있는 줄 아는데 성경은 호흡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따라가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라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자와 같이 죽었었는데 우리를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에베소서 2 장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이브가 나왔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가 나올 것을 미리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독생자 그분에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선약과를 먹고 와서 나 죽게 됐소 하니까 나도 죽어야지 하고 아내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사실 진짜 남자는 이것이 진짜 남자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남자가 진짜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man 이라 하고 여자는 woman 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지요.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에 봐도 남자는 he 이고 여자는 she 인데, 사실 여자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이브가 아니고 그냥 여자였어요. 결국 남자는 heman 이고 여자는 sheman 입니다. man 은 man 이에요. 다 남자거든요. 그런데 앞에 하나 붙은 겁니다. 남자는 man 이고 여자는 woman 인데, 물론 히브리어로 wo 는 x 로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 woman 할 때 womb 은 여자의 자궁이거든요. 남자는 남자인데 자궁남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가 말이죠. 크리스천들이 세운 나라라서 그런지 영어에도 영감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부인은 misses 아담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앞에 misses 가 붙었지요. 미국 이름 보세요. 결혼하면 남편 이름을 따라가잖아요. 미세스 김 미세스 박 그러지 그 여자 이름 안 부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 first name 을 부릅니다. 자기 이름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이걸 보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어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얼마나 파괴 되었는지에 정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의 심장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부지간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남자는 여자를 절대로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허리에서 나왔지 발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여자들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되고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담의 자손으로부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부부는 이제는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둘이 합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누리라 이겁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제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최초로 죄 짓기 전의 아담과 아담의 부인 미세스 아담처럼 그렇게 행할 때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한국 사람들 보면 남자가 앞에 가고 여자가 뒤에 졸졸 따라갔지요. 이건 한국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이후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결혼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란히 섰습니다. 나란히 서서 주례 앞에서 서약을 같이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멋지게 음악을 깔고 사랑의 고백도 하잖습니까? 옛날보다 더 멋있게 결혼을 하더라고요.

23 절 24 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들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니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라. 남자와 그의 아내가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그 당시 아담이 아버지가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 부모를 떠난다고 했을까? 이런 의문이 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될 것을 친히 말씀하셨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 장 4,5 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깨달을 것은 부부가 결합할 때 보통 세상에서는 혼인 예식이라 해요. 혼인! 그러나 사실은 몸의 육체의 결합이 바로 결혼입니다. 세상의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육체가 결합하면 이것은 이미 결혼한 것입니다.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육체가 떨어져버리면, 남자가 창녀와 결합을 했다면 창녀와 한 몸이 됩니다. 부부가 떨어져나간 겁니다. 그때 이미 이혼이 된 거예요. 꼭 이혼 소송해서 법정에서 사람 법관이 이혼을 선포해야만 이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다가 남편이 창녀와 결합해서 간음을 하면 그때 이미 떨어져서 이혼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몸과 몸의 결합이지 세상 법에 얽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부부가 떨어져 있을 때는 한편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이 돌아오길 기다릴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도 너희가 악하니까 간음하면 이혼증서를 써 주면서 이혼하라 하셨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어찌 사람이 나누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선은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인내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몸이란 사실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합니다. 한 몸입니다. 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 안에 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는 내 뼈들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다. 결국 내 뼈와 살이 내 앞으로 걸어오는구나. 이렇게 아담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피’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 장 51 절을 보면 혈과 육, 즉 피와 육 살덩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셨을 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옆구리에 로마 병정이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옆구리가 어딥니까? 바로 갈비뼈입니다. 이렇게 영감 있는 분들은 ‘아~ 그건 심장이구나. 틀림없이 다섯 번째 갈비뼈 아래였을 거야,’ 하실 겁니다. 물과 피가 다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5 장 7, 8 절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세 분이시오.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이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피를 다 흘리셨다. 다시 말해 거꾸로 말해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 몸의 순환계통이 바뀌어서 피가 생겼고 물이 생겼기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었습니다. 썩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흘려 보냈습니다.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 나에게 살과 뼈가 있다고 하셨지 피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은 죽기 전에는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주님께서 주신 위치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가 별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쉽게 얘기해서 한두 살짜리 애들 남자 여자 별거벗겨 놓고 같이 있게 해보세요. 그 아이들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로 우리는 이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치라는 것 사람들이 결국 수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 가지 수치심 때문에 떨어져 나갑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수치까지도 감당하셨다. 우리를 위해 수치까지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내가 드러낸 모든 수치를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다. 마치 내 죄를 다 드러내며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자기 죄를 다 드러냅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모두 드러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으면서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으면 수치심 있는 것은 드러내지 못하고 죄도 못 드러내어 쉬쉬하다가 결국 뒤에서 가십이 되어 결국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런 것을 보면 정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싶습니다. 믿음은 모든 죄와 수치를 주님이 다 도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죄를 드러내고 서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되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데, 수치를 품고 쉬쉬하다 보니까 교회가 딱딱해지고 예배드릴 때 기쁨이 없는 겁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에덴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정에서 회복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